매일경제 뉴스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오피니언 프리미엄 연예 스포츠 증권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기획연재 Special Edition 인기뉴스 암호화폐 오늘의 매경

시장금리는 오르는데...생명보험업계 보험료 또 인상

연초 중소 보험사 이어 삼성·교보 등도 예정이율 0.25%p 인하 "종신·건강보험 보험료 10% 안팎 인상 효과"

입력: 2021.03.17 05:37:00 수정: 2021.03.17 06:27:41





△보험료 인상 (P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과 다음달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린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이 0.25%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작년 4월에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렸고, 10~12월에 각각 1개와 2개 상품에 대해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에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 4~5월에 예정이율을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역시 이달에 나머지 상품의 예정이율을 2.0%로 낮췄다.









주요뉴스

왜 나를 못알아보지?...반려견 30%

허경영 "재산세 폐지해야...국가어

'차박 끝판왕' 아이오닉5, 뒹굴뒹굴

우리집 공시가, 왜 비싼가 했더니.

北 "말레이와 국교 완전히 단절...

인기뉴스

종합

연예

- 1 단교 결정에 말레이 맞대응 "특 대사관 48시간 이내 ..
- 2 [매부리TV] 허경영 "재산세 폐기 야...국가에 월세내란 ..
- 3 '차박 끝판왕' 아이오닉5, 뒹굴 거실 부럽지 않네
- 4 '가수 영탁' 불러 광고까지 찍나 걸리의 화려한 변신
- 5 [1보] 말레이 "北대사관, 48시긴 내 떠나라...우리도 ..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611) 안철수 46% vs 박영선 389

(336) "보너스로 BMW 뽑았죠"..

332) '브로맨스' 뽐낸 前 농협 호

292) LG, 최대연봉 5억 걸고 "AI

287) 안팔리는 폐교 1387곳...교

260) 독일 폭스바겐, "수소차 인

235) [포토] '몬테크리스토 더 두

(226) 관념을 벗은 통찰(洞察)의

226) 3주 만에 실전 OK금융그턈

매일경제 뉴스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NH농협생명은 다음달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조정한다. 종신보험은 작년에 인하돼 이미 2.0%를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도 1월에 비갱신형 보장성 상품에 대해 2.25%로 내렸고, 다음달 갱신형 보장성 상품과 종신보험도 똑같이 하향한다.

ABL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1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와 달리 푸르덴셜생명은 작년에 예정이율을 종신보험 기준 2.4%로 동결했고 올해도 당분간은 그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생보사의 예정이율 변경은 1년에 평균 1차례 미만 빈도였으나 지난해 저금리 심화를 이유로 일부 보험사는 두 차례 인하를 단행했다.

작년 9월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해 올해는 예정이율 동결, 즉 보험료 동결 기대도 제기됐으나 생보사 대부분이 보험료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7월 0.83%에서 지난달 1.00%로, 10년물은 같은 기간 1.36%에서 1.85%로 각각 상승했다. 보험사는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 투자를 많이 한다. 시장금리 동향에 견줘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 금리 상승에도 또다시 보험료를 올린 데 대해 보험업계는 작년 인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2019~2020년 금리 하락이 급격하게 전개된 데 비해 예정이율 조정은 대체로 0.25%포인트(p)였다"며 "작년에 한꺼번에 내리지 못한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의 핫뉴스^끄

왜 나를 못알아보지?...반려견 30% 치매 앓아요 4시간 17분 '차박 끝판왕' 아이오닉5, 뒹굴뒹굴 거실 부럽지않네 4시간 11분 우리집 공시가, 왜 비싼가 했더니...지자체 손놓았네 4시간 21분 北 "말레이와 국교 완전히 단절...美도 대가 치를 것" 4시간 14분

당신이 좋아 할 만한 기사

댓글

포토



2021 국가대표브랜드대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접수: 3월 31일까지 문의: 02-2266-0033

매일경제 뉴스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라이프	프리미엄	재테크	비즈니스	교육
경제	사설	야구	날씨	매경e신문	증권	닛케이텔레콤	오프라인
기업	기명칼럼	축구	골프	매경프리미엄	부동산	신설법인	어린이경
사회	사외칼럼	당구	여행	레이터M	경제용어	한국데이터거래소	매경TEST
국제	매경포럼	일반	Book	레이터P	해외DB		
부동산	매경데스크		우버人사이트	오늘의 매경			서비스
증권	주말칼럼	연예	MK생애설계센터		매거진		구독신청
정치	특별칼럼	주요뉴스	LUXURY M	캠페인	매경ECONOMY		구독신성 MK모바{
IT과학	전문기자칼럼			비게되시ㅠ권			
문화	기자24시	스타인터뷰		세계지식포럼	매경LUXMEN		신문PDF
기획·연재		TV · 방송		국민보고대회	시티라이프		트위터
		가요·음악		세계한상대회	골프포위민		페이스북
Special Edition		영화		정진기언론문화상			RSS
영문뉴스		해외연예					뉴스레터
중문뉴스		에지 간에					T-414
일문뉴스							



매일경제 회사소개 회사연혁 광고안내 구독신청 인재채용

매경닷컴 회사소개 광고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독자의견 서비스문의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이선형,고성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 02) 2000-21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43 등록일자 : 2009.11.30 발행일 : 2009.11.30 발행인/편집인 : 최용성 사이트맵 Copyright (c)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집 RSS

매